

# 광주·전남 검객 아시아 최강 한국펜싱 이끈다



펜싱 에페 광주서구청 강영미·해남군청 박경두 금빛 도전

## 강, 생애 첫 AG 개인·단체 2관왕 목표 박, 마지막 AG 단체전 3연패 '도전장'



강영미



박경두

아시아 최강 한국 펜싱이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2010년 광주,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4년 전 안방인 인천에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남겼던 한국대표팀은 이번 자카르타에서도 최고 성적을 노린다. 최근 성적대로라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대표팀은 지난달 중국 우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다 메달(금2·은2·동3)과 최고 순위(2위)를 기록한 뒤 아시안 게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중 남녀 에페에서 광주와 전남 선수들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광주서구청 강영미(33)와 해남군청 박경두(34)다.

강영미는 리우올림픽에선 16강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탈락했지만 이후 국제대회에서 한껏 불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강영미는 지난 6

월 2018년 아시아펜싱선수권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7월에는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아시안게임은 이번이 첫 출전이지만 메달 색만 남아있다는 것이 펜싱계의 분석이다.

박광현 광주서구청 펜싱팀 감독은 "강영미가 개인전과 단체전에 나서게 되는데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냐만 남은 것 같다"며 "중국과의 맞대결에서 결과가 메달 색깔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의 최고 만형인 박경두는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한다.

박경두는 2010광주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이 자카르타에서 금메달을 따게되면 3연패 금자탑을 쌓게 된다.

아쉽게도 개인전은 랭킹에서 밀려 참가하지 못한다. 정진선과 박상영만 개인전에 나선다. 박경두는 단체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목표는 금메달이고 펜싱계의 예상성적도 역시 금메달이다.

박경두도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한국 펜싱 남자 에페가 3년 만에 단체전 준우승을 일궈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박경두는 최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스위스와의 단체전 결승에서 박상영, 정진선, 권영준 등과 출전, 아쉽게 31-36으로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은 지난 2015년 모스크바 대회 이후 3년 만에 귀중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경두는 지난 6월 2018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3위를 일궈냈고 5월에는 남자 에페 월드컵에서 단체전 에스 프랑스에 이어 준우승했다. 남자에페대표팀은 이번 시즌 월드컵 5개 대회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따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박경두는 개인전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경두는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펜싱 에페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수확하는 등 펜싱이 한국의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박경두는 타 시도에서 제시한 좋은 대우를 마다하고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해 12월 해남군

정인으로 동지를 옮겼다.

정인우 해남군청 펜싱팀 감독은 "박경두가 2020도쿄올림픽까지 내다보며 훈련중이지만 아시안게임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남자 에페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실력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박경두도 3연패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서 선수들이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이 7일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금·은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채순 감독, 김소연, 이소현, 이특영, 최민선, 기보배. /연합뉴스

# '팀 코리아' AG 6회 연속 2위 "파이팅!"

### 대한민국 선수단 600명 결단식...18일 열전 스타트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6회 연속 2위 성적을 향해 합차게 출발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SK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결단식에는 약 600명의 선수단이 참석해 출전 결의를 다졌다. 선수들은 청색 바지와 흰색 재킷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을 착용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병국 문체부 체육협력관, 김성조 한국 선수단장이 참석해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을 응원

하고 격려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독한 폭염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선수 여러분이 장하다"면서 "최고의 성적도 중요하나 그간의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는 감동을 자신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전해줄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출전은 선수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며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 한 분 한 분이 민족화해와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세로 북한 선수들을 배려하고 이들과 협력하며 잘 지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흥 회장은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하나된 한국 체육의 힘을 보여줄 기회"라고 기대했다.

선수단 소개에 이어 이기흥 회장이 단기인 태극기를 김성조 선수단장에게 건넸다.

이낙연 총리는 한국 선수단 기수인 여자 농구 국가대표 임영희에게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타월을 전달했다.

카누 남북단일팀의 안현진, 선수단 남자 주장인 핸드볼 정의경, 여자 주장인 펜싱 남현희, 태권도 이대훈이 선수단을 대표해 임영희와 함께 응원 타월을 목에 걸고 필승 각오를 되새겼다.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65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1998년 방콕대회 이래 6회 대회 연속 2위에 도전한다.

카드 두뇌 게임인 브리지를 제외한 39개 종목에 선수 807명, 경기입원 186명, 본부입

원 51명 등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남북은 여자 농구, 카누 드래곤보트, 조정 3개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아시아 경쟁국과 기량을 겨룬다.

국제 종합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결성된 건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인도네시아에서 56년 만에 열리는 올해 아시안게임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나라 1만1,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7일간 465개 금메달 놓고 경쟁한다.

육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이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사격과 조정 등 17개 종목은 팔렘방에서 개최된다.

선수단 본단은 15일 자카르타와 팔렘방으로 각각 떠난다. /연합뉴스

# 박인비 삼다수 마스터스 정상 도전한다

### 타이틀 방어 고진영 올해 국내 대회 첫 출전

골프여제 박인비(30)는 국내 대회 출전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지만 2014년부터 5년째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는 거르지 않는다.

2012년 삼다수 홍보대사를 맡은 인연으로 해마다 출전했다.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오라 컨

트리클럽 동·서코스(파72)에서 열린 올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자 명단에도 어김없이 박인비의 이름이 들어있다.

올해로 다섯번째 출전이다.

박인비는 지난 네차례 출전에서 4위(2014년), 8위(2015년) 등 두번 톱10에 들었지만 우승 기회는 만들지 못했다.

지난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KLPGA투어 대회 우승이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낸 박인비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첫 정상을 노린다.

대회가 열리는 오라 컨트리클럽은 박인비가 국내에서 가장 자주 경기를 치러본 코스다. 따로 연습 라운드가 필요 없을 만큼 코스를 잘 안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불의의 컷 탈락은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 실업양궁연맹회장기 광주시청 단체전 우승

### 개인전 최민선 금·이소현 은메달

광주시청이 7일 충북 보은군스포츠파크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금·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우승으로 광주시청은 올시즌 4개 전국대회 연속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휩쓸며 대한민국 최고의 실업팀임을 재확인했다.

광주시청은 올림픽라운드 단체전에서 청구시청을 6-0(54-53 56-55 58-54)으로 꺾었고 준결승에서는 흥성군청을 5-4(53-54 55-53 54-55 55-51 슛오프 29-25)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대전시체육회. 광주시청은 대전시체육회도 6-2(55-54 57-54 55-57 58-53)로 물리치면서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개인전에서는 최민선과 이소현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가졌다. 최민선이 결승전에서 6-4로 승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광주시청의 우승행진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5월 제52회 전국남여종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기보배)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제36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양궁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금·은메달을 독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최민선이 우승, 이소현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5회 회장기 전국남·녀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도 단체전·개인전(이특영) 우승을 휩쓸었던 광주시청은 이번 대회까지 4개 대회 연속 단체전·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4개 대회 연속 우승은 지난 2004년 창단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이다.

박채순 광주시청 감독은 "폭염속에서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훈련하는 등 꾸준하게 연습해온 것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며 "쉬는 날도 없이 주6일 훈련을 강행해왔음에도 선수들이 불평불만없이 잘 따라와 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선수들이 잘해준 덕분이다. 너무 고맙다"며 "더욱더 훈련에 매진해 다가올 전국체전까지 성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